

14회 뇌허학술상
정병삼 교수 수상

뇌허 김
동화 박사
를 기념하
기 위해 제
정된 뇌허
학술상의
14번째 수상자로 정병삼 교수
(숙명여대 한국사학과)가 선
정됐다.



선정대상 논문은 <의상 화
업사상연구> 의상의 화업사
상과 관음 및 미타신앙, 교단
활동이 종합된 불교사상의 내
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사
회적인 의의를 추구한 저서.
올해 뇌허학술상은 1998년
한해동안 발표된 모든 불교관
계 논문 중 97편을 간추려 심
사했다. 심사위원은 원외법,
이재창, 김영태, 서윤길, 윤호
진 교수가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공우스님(전
국비구리 회장). 4월5일 오전
10시 정각사에서 시상한다.
상금 3백만원

개화기 사찰교육 민중계도 기여

정영희교수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개화기 불교지도자들은 전국 사
찰에 근대식 불교교육기관을 설립
해 승려 교육기관이던 강원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면서 스님은 물론 민
중들에게도 근대교육의 기회를 부
여했다. 그 결과 불교지도자들은
근대교육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시
키고 근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
고 한국의 근대교육 발전과 근대사
회 이룩에도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해안 판)>에서 정영희 교수(인천
대)는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
래 자비와 평등, 문화와 전통, 국권
수호 사상을 일깨워주었을 뿐만 아
니라 민중을 계도하는 중심사상으
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
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의 주도하에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유교사회의 잔재를 청산
하고 선진화된 서양의 근대교육제
도를 수용해 나간 것으로 보았다.
이들에 의해 추진된 구국교육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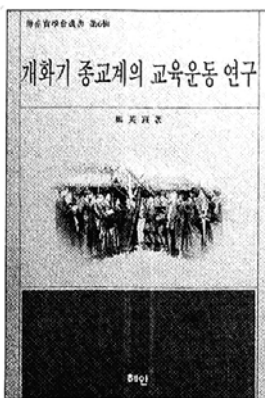
은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봉건국가
가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
대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조선 말의 종교정책은 기독교는
물론 일본 진종과 일련종에게도 포
교를 인정하였으나 유독 불교에 대
해서는 1623년 제정된 '승려도
성출입 금지령'을 고수함으로써 배
타정책으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어 불교계는 위축
되었지만 각 교단과 사찰에 강원
선원 울림 열불원 등을 설립하여
승려 양성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강원·선원·울림·염불원 민족교육 밑거름 보통학교-지방-중앙학림 3단계 제도 확립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사찰
은 종합교육기관인 총림을 설치해
전통교육기관으로 키워나갔던 불교
계의 교육 목적은 사회발전이 기여
할 수 있는 구도자 양성에 있다고
밝혔다.

개화기 불교지도자들에게 근대의



정영희교수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해안 판)에서 정영희 교수(인천대)는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자비와 평등, 문화와 전통, 국권 수호 사상을 일깨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을 계도하는 중심사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식을 심어주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정교수는 개화승으로 널
리 알려진 이동인(李東仁)을 들고
있다. 이동인이 강화 활동을 펼친
병원사 강원은 스님은 물론 개화인
사들에게도 근대의식과 학문을 가
르치는 개화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병원사 강원의 근대의식 수용은 이
보담 홍일초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들을 중심으로 수용됐던 것이다.

불교계의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명진학교를 비롯해 7개가 있었고
전국 각 지방에 명화학교 등 20여
개가 있었다. 이렇듯 불교교육운동
은 '사람학교'로 많은 사립학
교가 폐교되던 가운데에도 10개의
보통학교와 10개의 지방학림 인가
를 받아내는 등 보통학교와 중학교
중앙학림으로 연계되는 3단계 교육
체도를 확립하는 성과와 함께 구국
적인 민족교육 발전의 밑거름을 쌓
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영희 교수는 불교 외에도 유교
기독교 천도교의 교육정책을 분석
하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
해 추진된 기독교계의 교육운동은
7백여개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교수는 기독
교계의 근대교육운동이 종교적으로
편향된 인성관, 세계관을 주입시킨
폐해가 있지만 배일사상을 고취시
켜 한국의 근대교육 발전과 민족의
식 배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일본불교 사이트

최근 일본의 정치·종교계
지도자들이 잇달아 해인사와
백양사를 방문해 화제를 모았
다.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대표
적인 유산 '팔만대장경'이 봉
안된 곳이며, 백양사는 한국불
교의 선지식 서용스님이 주석
하는 고찰이다. 불자네띠즌이라
면 일본의 두 지도자들이 한국
의 고찰 두 곳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일본불교에 대한 호기
심을 충족시켜줄 사이트를 찾
아보았다.

불교문헌 전산화 공개

▲화원대학선학연구소
인터넷에 가장 많은 불교 텍
스트를 올려 놓고 있다고 자부
하는 사이트가 바로 '화원대학
전자달마' 사이트다.

일본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교와 연구소에서 불교 문헌
의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
지만,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이 연구소에
서는 활발하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 홍보하려는 노력이 돋
보인다.

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
는 정보는 △선종관계 텍스트
(JIS와 BIG5) △불전 전산화 현
황 △선종 관계 예술 △선종
기관 관련 정보 △선종학에 관
련한 글 △선지식베이스(Zen
Knowledge Base) 등이다.

이국적인 종파 '옛보기'

▲정도진종 동본원사
토모넷(TOMO-NET)에서 운
영되고 있는 동본원사(東本願
寺)는 교토에 위치한 명찰로 일
본 정토진종(엄불종) 대교파(大
谷派)의 본산이다. 이 사이트는
진종의 공식 사이트로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진종의 가
' (gobacou@buddhapia.com)

리즘 '연어스님 500 주기 기념
사업' 불교의식과 출판물 소
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일본
어를 읽을 수 있는 불자네띠즌
은 재미있게 구성된 내용을 따
라, 이국적인 종파에 대한 특별
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 가이드' 서비스를 이
용하면 동본원사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이중에는 종조 친난스님의
묵상을 모신 건축물로 세계 최
대의 목조 기념물인 어영당(御
影堂)과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
인 아미타당(阿彌陀堂)을 비롯
해 성성원(成聖園·정원), 대국
조묘(大谷祖墓·종조의 묘소)
등을 관광할 수 있다.

청년불자 활동 자세히

▲조동종 전국청년회
백양사를 방문한 이따하시스
택이 종정으로 있는 長懸 조동
종은 임제종과 더불어 일본 선
종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일본
의 조동종은 도원선사를 개산
조로 하는 영평사(永平寺)와
형산선사를 개산조로 하는 총
지사(總持寺)의 양대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답게 주요 활
동상황과 소식 등의 정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본 청년
불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행 환경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조동
종 이외에도 임제종이나 다른
종파의 활동 상황을 연이어 찾
아 볼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은 선종의 전통인
만큼, 참선하는 방법이나, 참선
모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화원대학국제선학연구소 <http://www.ijnet.or.jp/iriz/irizhtml/>
정도진종 동본원사 <http://www.tomo-net.or.jp>
조동종 전국청년회 <http://www.jtvan.co.jp/~soto>

학술단신

제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진각종 교육원(원장 일정)
은 불교관련 연구활동을 지원
하고 밀교학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월24일까
지 제1회 진각논문대상을 공
모한다.

밀교학, 밀교사, 밀교관련
응용분야, 진각종학 등 밀교
분야와 불교학, 불교사, 불
교관련 응용분야 등 불교일반
분야로 논문대상공모에 참여
를 희망하는 사람은 4월24일
까지 논문제목과 계획서를 제
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5월1일 발표하며
당선 우수작에는 2백만원, 가
작에는 1백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진다.

(02)913-0753

4월31일 불교학연수

일본 광명연수회와 대한불
교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불
교학연수회가 4월31일 진흥
원 대법당에서 개최된다.

한일 불교계의 이해와 교류
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번 연
수회는 열흘을 통한 불교정통
구현을 위하여 불교학 연구
및 연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의 제1주제는
열불과 현대생활로 가와나미
아키라 교수(河坂昌, 일본 동
양대학교)가 제2주제인 열불
신앙의 실천과 형태는 보광스
님(동국대 교수)이 발표한다.

'한국불교의 잠재력 미래사회속 역할'

'전통과 현대' 보호 특집 다뤄

재해석을 시도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
아 '정보시대와 불교자료의 모색'이란 논문
에서 심재룡 교수(서울대)는 '정보'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함께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
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계종 종단 소속 스님 가운데 비구니스님
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지만 한국
불교의 분위기는 여성을 성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분위기
를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김용철 교수(중앙
승가대)의 '정업원(正業院)과 사승방(四僧房)
의 역사로 본 한국의 비구니'는 비구니 승가
공동체의 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의 공
동체 윤리를 21세기 윤리의 패러다임으로 제
시하는 안옥선씨(전남대 강사)는 '21세기를
위한 윤리의 모색: 불교윤리의 관점에서'를
통해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자비심을 통한
공동체적 삶의 모형을 탐구하고 이기심으로
어가는 물질만능 시대의 양상으로 제시했다.

'불교와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허우성 교수(경희대), 신규탁 교수, 오진탁
교수(한림대) 등이 김석근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가진 좌담에서는 한국불교의 보편성
과 특수성, 한국불교에서의 불교와 정치권
력의 관계, 21세기 불교의 역할 등을 다루
고 있다.

김지연 기자

15세기 불교판화-석조미술 조명

정병모 교수소재구씨 강좌 미술사 세미나서

"15세기의 판화는 주로 묘법연
화경병상도, 부모은중경병상도, 지
장보살본원경병상도 등이 많이 제
작됐으나 성종대에 이르러 삼장행
실도라는 유교판화가 제작됐다."

'태·성종대의 판화: 15세기의
판화'에 대해 발표한 정병모 교수
(경주대)는 제59차 강좌 미술사
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의외로 유교를 포함한
왕실이지만 왕족들은 불교를 신봉
해 이러한 성향이 판화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
대)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
명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발표회
에서 '태·성종대의 석조미술'을
주제로 발표한 소재구 학예관(국
립중앙박물관)은 불교적 유교적
성품이 병존하던 전환기적 과정으
로 이시기의 석조미술을 진단했
다. 당시 석조물의 축조는 왕실
및 양반 관료 층이 발원자가 되어
불사 추진 외에도 능침 등에 석탑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밝혔
다.

김지연 기자

'조당집'의 선승행적 따라

조영록 교수 中북건지역 답사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가 고승 2백57명의 행적과 어록을 담
은 <조당집(祖堂集)>의 산실인 청원산 초경사지 등 <조당집>의 선
승 행적을 따라 중국 북건지역 한국불교유적을 답사한 결과가 슬
라이드 상영과 함께 발표됐다.

북건지역 답사는 당말오대(唐末五代) 설봉(雪峯) 계통의 선종과
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우리나라 선승들의 구법활동을 조사한 것이
다.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회의 제1회 발표회에서 조영록 교수(동국
대 사학과)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장주의 보복선
원(保福禪院), 나한원(羅漢院), 하문(廈門)의 남보타사(南普陀寺),
천주(泉州)의 개원사(開元寺), 승천사(承天寺), 진강(晉江) 주위에
있는 북정사(福濟寺), 복주(福州) 서선사(西禪寺), 고산(鼓山) 용
천사(湧泉寺) 등 답사한 사람들을 소개했다.

김지연 기자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 입 안 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 x 55cm』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원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 불교경전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 대승불교의 이해 ◇ 중국불교의 이해 ◇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 불교문화의 이해 ◇ 비교종교 ◇ 부파불교
	2 학 기 ◇ 초기대승불교 ◇ 반야사상 ◇ 유식사상 ◇ 기신론 사상 ◇ 천태 사상 ◇ 화엄 사상 ◇ 선사상 ◇ 정토 사상 ◇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 범패의식 특강 (동·하계 스쿨링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 권기중교수, 조용길박사, 권관준박사, 장희욱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영박사, 김중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교수)

5. 원서교부 3월·8월 (본대학 서무과) * 수시접수가능
6. 제출서류 ◇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